

# 광산, 인공지능 시대 삶의 지혜 찾는 '서원 아카데미' 운영

2026 광산구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season5**

## 광산, 서원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사업 기간 2026년 5월 13일(수)-7월 1일(수)

모집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5월 12일(화)

대상 호남학을 사랑하는 일반 대중 40명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서원

문의 호남학당 010-2643-2167

주최 광산구 주관 호남학당

서원 아카데미 10:00-11:30 - 선착순 40명 지원 및 다과제공		
일시	강사명	내용
5월 13일(수)	김학권(원광대)	주역과 고종학
5월 20일(수)	이철승(조선대)	우리말학의 도전과 흥건
5월 27일(수)	최대우(전남대)	동무 이체마와 사상파
6월 10일(수)	조우진(전남대)	주역과 송유(한남)
6월 17일(수)	유자훈(전북대)	잊어진 논쟁 안일 심심논쟁
10:00-13:00	전성수(전북대)	세 정 리더들은 왜 손자명법에 열광하나?
6월 24일(수)	장성업(전남대)	다산과 서양의 만남
10:00-13:00	김경호(전남대)	유교와 도학
7월 1일(수)	이흥서(전남대)	송명여과 전라
10:00-13:00	김경호(전남대)	정리, 다시 만나는 고봉

서원 강학회 11:30-13:00 - 선착순 40명 지원 및 다과제공		
일시	강사명	내용
5월 13일(수)	김재현(전남대)	적은 강독 및 특강
5월 20일(수)	김재희(백현서당)	명자 강독 및 특강
5월 27일(수)	류근성(광여학)	주자론적 강독 및 특강
6월 10일(수)	이향준(전남대)	남정식의 강독 및 특강

서원 답사 08:30-17:00	
일시	답사장소
6월 6일	나주향교, 경현서원, 남도지방역사박물관, 북암리고분전시관, 금사정 등

서원 음악회 13:00-14:00		
일시	음악회명	출연진
5월 13일	빙월당 음악회 헌정, 향유후회1	
6월 24일	빙월당 음악회 헌정, 향유후회2	

광산, 서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포스터

/광주 광산구청 제공

## 고봉 기대승 발자취 따라...강연·강학·답사·음악회 운영 AI 시대 삶의 지혜 모색, 전통 인문학의 현대적 계승

광주 광산구가 고봉 기대승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호남유학 인문 프로그램인 '광산, 서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광산, 서원 아카데미는 광산구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호남학당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인문학을 생활 속에서 확산하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유교 인문학을 토대로 한 강연과 강학회로 일상의 깊이를 더하고, 고봉 기대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답사 프로그램과 빙월당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서원 아카데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AI)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동양 철학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통해 일상을 재정립하는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아카데미는 김학권 원광대학교 교수, 이철승 조선대학교 교수, 최대우 전남대학교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다채로운 강연을 선보인다. 교육은 13일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서원 강학회는 옛 서원 공부 모임을 재현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서원 최초로 조선시대 서원의 교육 기능을 부활시켜 향후 서원이 나아가야 할 현대적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강학회에서는 김태완 전남대학교 교수, 김재희 백천서당 강주 등이 참여해 한문 고전 강독 및 토론을 펼친다.

또한 6월 6일에는 나주향교, 경현서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북암리고분전시관, 금사정 등 '서원 답사-전통시대 유적'을 탐방한다.

'빙월당 음악회-향유(享有)'는 고봉 기대승의 시를 소재로 한 창작 가곡 공연과 성악 앙상블과 아쟁, 첼로 등 기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광산, 서원 아카데미는 40명을 모집하며,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호남학당(010-2643-2167) 및 광산구 관광육성과(062-960-8892)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카데미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일상에서 인문학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기만 기자

# 복구, 3,700여 공유재산 빠짐없이 살핀다

## 구 재산 전수조사...무단 점유 집중 점검 변상금·원상복구, 관리 효율 강화

광주광역시 복구(구청장 문인)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최근 복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총 3,736필지(약 171만㎡)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무형재산 등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골자이다.

복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 정보 불일치 정비 ▲누락 및 미등재 재산 발굴 ▲무단 점유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등 재산

관리 상황 전반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 조사를 추진해 실제 이용 현황과 대장 정보의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유가 적발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신규 활용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용 허가, 대부, 매각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까지 빠짐없이 살피 관리관계를 점검하고 무단 사용 시에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각 재산을 관리 중인 부서에서 수행하며 오는 10월 중 변동 사항 현행화, 권리 보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최종 점검 결과는 전산에 입력해 지속 관리한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복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재산별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민 편의 증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 확충이나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유휴재산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치된 재산을 줄이고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재산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을 예정이다. 복구는 아울러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직자 교육과 내부 점검도 병행해 행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광주 복구청 전경 사진

/광주 복구청 제공

